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3주년을 축하하며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신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이 자리를 지대한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이신 지원스님과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의 구심점이 되어 교단내외 양성평등 구현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불자108인회, 영108,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승만경연구회, 웰다잉운동본부, 명상리더십센터, 사찰음식문화센터, 불교여성연구소, 교정교화센터과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실시한 여성불자 108인 사업이 이제 6차에 이르러 600여명의 여성불교 지도자가 발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렇게 발굴된 여성 지도자들이 ‘교단 내에서도 대사회적으로 어떤 임무를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성 지도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나 포교·신행 면에서 10년 이상 활동해 오신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정법수호와 중생교화를 위해 회향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성불자 108인들이 힘을 모아 불교계나 이 세상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나누는 모범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서로를 보살피는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나아가 전 세계 인류가 서로를 돕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자비광명을 축원합니다.